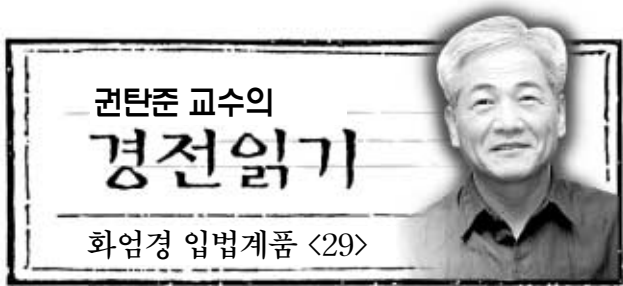


선재동자는 승열바라밀로로부터 남쪽 사자본신성(獅子奮迅城)에 있는 자행동녀(慈行童女)를 찾아가서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사자본신성에 이르러 그녀를 찾아보니, 그녀는 사자당왕(獅子幢王)의 딸로서 비로자나장 공전에 머물면서 묘법을 연설한다는 말이 들리었다. 무량한 대중들이 자행동녀의 법문을 듣기 위해 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선재동자도 왕궁에 들어가보니 과연 자행동녀가 비로자나 공전에서 법을 설하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뒤는 법을 묻자, 자행동녀는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공전의 장엄을 보라"고 말하였다. 선재가 무수한 장엄을 두루 구경하니, 낱날의 장엄 가운데 온 법계의 여러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발심하고, 보살행을 닦아 큰 서원을 만족하고, 공덕을 갖추어 정등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다가 열반에 들어가는 일이 영상(影像)처럼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깨끗한 물 속에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사물의 모습이 비치는 듯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자행동녀가 지난 세상에 심은 선근(善根)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선재동자가 공전의 장엄에서 본 부처님들의 여러가지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행동녀가 선재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인데, 내가 삼십육 항하사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법을 얻었는데, 저 모든 부처님들은 각각 다른 법으로써 나를 이 문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재동자는 자행동녀에게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29>

자행동녀의 법문

반야바라밀로 부처님 경계 장엄

조용히 사색하며 깨달음 바로 이해

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에 자행동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선남자여, 내가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서 수순(隨順)하여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적에 문(門)다라니를 얻으니, 백만 아승지 다라니문이 앞에 나타났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면서, 자행동녀는 부처님 · 법 · 중생 · 공덕 · 지혜 · 행(行) · 마음 다스림 등에 관한 다라니를 모두 일백일곱 가지나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선남자여, 나는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門)만을 안다"라고 하였다.

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은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불국토를 장엄하는 공덕을 두루 갖추는 법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행동녀가 이러한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동녀(童女)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공토를 장엄하는 공덕을 낼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행동녀는 이것은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법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신증(身證)해서 나타내 보이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행동녀가 평소에 생활하는 주변환경과 온갖 기물(器物)속에서 온 법계의 여러 부처님들의 거룩한 행적을 영상(影像)처럼 나타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항상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행동녀의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속세에 수행해서

심은 선근의 힘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행동녀는 과거 무량한 부처님 계신 곳에서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법을 얻었으며, 그 부처님들이 각기 다른 문으로써 여기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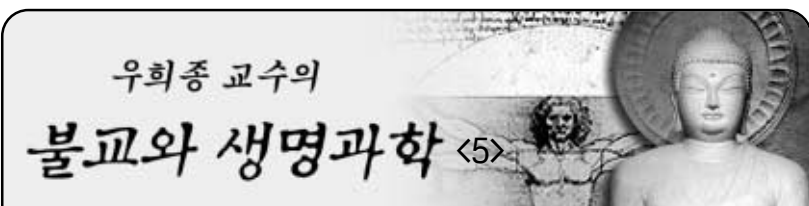
그리고 자행동녀는 이 반야바라밀로 부처님 경계를 두루 장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혜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하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량한 다라니를 얻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다라니로써 표현하고 있다.

다라니는 모든 가르침을 이해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또는 여러가지 의미를 간단한 언어로 요약한 것을 말한다. 자행동녀의 법문에서 반야바라밀로 부처님의 경계를 두루 장엄하는 공덕을 갖추는 것을 무량한 다라니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진실로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부처님 경계를 장엄하는 공덕을 갖추어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념(正念)으로 사유(思惟)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조용히 사색하여 가는 가운데 깨달음의 가르침이 바르게 이해되고 분별하게 기억되어 진실한 세계가 열리어 오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량한 다라니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무진(無盡)의 세계를 장엄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결국 데서서 항상 공덕을 두고 지혜의 작용을 일으켜서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

무명과 길들여짐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세상에 나타났던 생명체는 스스로를 홀로 알 수 없다. 비교행동학자인 콘라트 로렌츠를 예로 들어 보자. 새끼 새는 그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마저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은 더 나아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생(生)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생이 있고 생이 없고, 또 사(死)가 있고 사에 길들여지지 않아 사가 없으니 이로 인하여 생사를 떠날 수 있으니 생노병사, 윤회를 거듭하는 무명심의 근원은 이렇듯 본디 실체도 없는 마음의 길들여짐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길들여진 모습을 반야심경에서는

생명체는 대상통해 자기존재 확인

"길들여 지지 않으면 그대르가 부처"

무명의 잠 모습은 본디 그러한 연기(緣起)에 있다.

생명체가 길들여질 때 그 대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내는 너와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무엇에 길들여진다 함은 그 대상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놓게 되고, 그렇게 머무르게 된 마음은 그것을 못 구해서 괴로워하고 또 그것이 충족되면 새로운 대상을 구하게 되는 끝없는 갈망(渴望)의 연속일 뿐이다.

돈이나 사랑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길들여질 때, 우리는 이러한 길들여진 일상생활로부터 뛰어나와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대상을 찾아 끝도 없이 찾아 헤매게 된다. 다시 말하여 길들여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상적 삶의 소중함과 새로움을 잊고 있는 단조

전도몽상(顛倒夢想)이라 한다. 출가를 하여도 승상을 벗어아 하고, 공부를 하여도 법을 여미며,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은 바가 없고 보살행을 행한다하여도 그 행하는 바에 머물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중생의 모습 그대로 부처가 되는 도리이기에 단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대가 곧 부처가 된다. 이를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 했고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했던가.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인이 되어 그저 따지지 않고 오거나 가거나 마음은 장황로부터 뛰어나와 자신이 머물고자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대상을 찾아 끝도 없이 찾아 헤매게 된다. 다시 말하여 길들여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상적 삶의 소중함과 새로움을 잊고 있는 단조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지난번 연재에서 독자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었다.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선종의 종지에 대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시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당연히 그 숙제를 하였다. 다음은 필자가 생각해본 내용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맞대놓고 가능해보시기 바란다.

'직지'란 곧바로, 직선으로 가리킨다는 말이겠다.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이른바 <직지심경(直指心經)> 또는 더 줄여서 <직지>라고 일컫는 문서 제목의 바로 그 '직지'이다.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자면, 직지심경이라는 약칭은 잘못된 것이다. 온전한 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니 약칭을 한다면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터이다. 목판본과 필사본은 국내에 보존되었는데, 금속활자본은 상·하권 가운데 하권만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분들이 혹시 국내에도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을까 하여 직지 찾기 운동을 벌여왔는데 아직 시원한 소식이 없다.



아무튼, 무엇인가를 곧바로 가리킨다는 말이 '직지'인데, 그러니까 '직지인심'이라 하면 이것저것 다른 것을 지적거릴 필요가 없이 곧장 사람의 마음을 문제삼는다는 뜻이겠다. 여기에서 우선 왜 '직지'할 것을 강조했는지 새겨봐야 하겠다. 도

선의 세계 ②

직지인심(直指人心)-1

기의 정체성을 내세울 때 가장 흔히 강조한 특징이 '우리는 교종(敎宗)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이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다음에 살펴볼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는 구호와도 관계가 있으니 앞으로 차차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경전에만 목매는 행태 비판

대체 무엇을 문제로 보았기에 선종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곧바로 질러 들어가라'고 역설했을까? 이것저것 다른 데 한눈은 파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기에 담겨있을 하겠는데, 과연 어떤 것을 염두에 두었을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경전 공부에만 목을 매는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선종이 기존의 여느 종파와 구별되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종'이라고 자처하는 특징 종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선종 축에서 기존의 종파들을 싸잡아서 일컫기를 교종이라 하였고, 그것은 경전에만 매달리는 무리라는 뜻이었다.

불교의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한 직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늘 가까이 모시며 가르침을 다 외워둔 아난(阿難)이라는 스님이 있

었다는데, 교단의 최고 실력자 500명이 모인 가운데 외운 것을 구술(口述)하여 받아 적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은 처음에 '여시아문(如是我們)', 즉 '이와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니, 여기에서 '저'란 곧 아난이다.

그게 사실일까? 정말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일일까? 의심이 드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이 있더라도 필자에게 진위를 묻는 질문을 던지지는 말기 바란다. 답을 모르니까. 불경이나 기독교의 성경 같은 종교 문헌의 기사를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나중에 또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아무튼, 경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문서이니, 불자의 신행으로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면 받았지 어찌하여 비판받을 일이라는 말인가? 선승들도 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윤배반적인 이야기를 그토록 할주어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보기로 하자.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김산대서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1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할 것인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感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저자인 **감산** (感山, 1546~1623) 스님은 윤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의 지옥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여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嶺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師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윤진이 **대성** (大晟)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